

News & Issue

뉴스와 쟁점

2017 베네수엘라 위기: 라틴아메리카 시대 전환의 징후

박수경

1. 50년의 내전 그리고 평화협정에 던진 ‘NO’

20년 전인 1997년 우고 차베스는 제5공화국운동(MVR: Movimiento de V república)이라는 정당을 창당했다. 다음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차베스는 56.2%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99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차베스는 세 번에 걸쳐 연임에 성공한다. 2013년 초 건강문제로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이임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5일 15년 간 대통령 자리를 지킨 차베스는 세상을 떠났다. 그 후 4년이 흘렀다.

차베스는 라틴아메리카 ‘핑크 타이드’의 신호탄이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당정치에 핵심인물이었고, 그 뒤를 이어 좌파의 이름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2003-2011), 키르츠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2003-2007),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2006-현재),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2007-2017) 등과 함께 라틴아메리카를 반신자유주의 좌파 정치의 메카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1994년 사파티스타 봉기로 침체기에 봉착한 세계 사회운동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며 혁명과 저항의 아이콘이 된 라틴아메리카와는 다른 층위에서 형성된 또 하나의 라틴아메리카였다.

특히 미국과 관계에서 라틴아메리카 좌파 대통령들은 종종 ‘동료’의



2005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6차 아메리카정상회의. 왼쪽부터 키르초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출처: <http://www.frontline.in>)

제스처를 취하며 미국의 주도권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만큼 자주 피델 카스트로와 좌파 대통령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하는 사진이 언론에 등장했다. 그런 사진 속에서 차베스의 단단한 눈빛과 노쇠했지만 변함없는 카스트로의 강렬한 눈빛은 두 사람이 군인출신 혁명가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주곤 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의 연대는 언론 플레이를 넘어서 분명 효과를 발휘했다. 비록 정치적 지향과 구체적인 정책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와 일정한 간격을 둔 채 격동의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진보 이념을 상속받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2013년 3월 5일 차베스의 죽음은 차베스가 시작했고, 차베스로 상징되었던 핑크 타이드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탄이 되고 있는 듯하다. 차베스 1주기였던 2014년, 국제유가하락으로 타격을 받은 베네수엘라 경제문제는 이미 ‘식량난과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말로 언론에 오르내렸고, 15년의 핑크 타이드 시절 포퓰리즘 외에 좌파정권을 공격할 언사를 찾지 못하고 부글부글 속만 끓이던 라틴아메리카 우파는 마침내 포퓰리즘의 종착역에 이른 듯 ‘국가경제의 파탄’을 외치며 다양한 형태로 좌파 정권을 향한 공약을 시도했다.

2000년대 상승세이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 변곡점을 지나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베네수엘라 뿐만 아니라 자원 채취에 의지해 신자유주의와 거리를 유지하던 좌파정권은 더 이상 우파와 차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사실상 경제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못한 좌파정권은 과거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것만으로 우파의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5년 동안 세대교체가 절반쯤 이루어져, 핑크 타이드가 시작된 2000년 10살 남짓이던 아이들은 이제 20대 초중반의 청년 유권자들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10살 이전의 기억은 별로 남아있지 않은 법이다.

2016년은 그러한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과 아르헨티나 마크리 대통령의 당선은 ‘좌파 위기’의 증거였고, 11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2주 후인 11월 25일 피델의 죽음은 장기적으로는 20세기 후반, 단기적으로는 지난 15년의 핑크 타이드가 마무리되는 징후처럼 보였다.

베네수엘라 경제상황은 2014년부터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그리고 2016년 여름 무렵 물건을 사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서 있는 사람들, 상점야탈, 소요사태에 가까운 시위현장의 이미지가 부쩍 많아졌다. 1999년 헌법 개정 이후 세 차례 총선에서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한 반(反)차베스파는 차베스의 삼선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위기는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다.

2014년 반 토막이 난 국제원유가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직격탄이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전체 수출의 95%를 석유산업에 의지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25%를 석유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비석유부문 제조업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기본소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유가 하락으로 달러수입이 감소하자 우유, 밀가루, 휴지와 같은 식품 및 생활필수품을 비롯하여 의약품의 공급이 어려워졌다. 2003년부터 시행된 정부통제의 이원화된 환율시스템과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한 부패는 달러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었고, 암시장 거래를 부추겼다.¹⁾ 이러한 경제상황은 ‘식량난, 폭동,

1) 2003년부터 베네수엘라 정부는 식료품과 의약품 같은 기본재 수입을 위해 적용되는 1달러=10볼리바르의 보호환율(Dipro)과 그 외 재화 수입에 적용되는 Dicom을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Dipro가 300배 넘게 달러를 저평가해서 암시장을 통한 달러거래로 이익을 얻는 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있다.



2015년 베네수엘라 상점 밖으로 길게 늘어선 줄 (출처: <http://www.laprensa.hn/mundo>)

굶주림'과 같은 선정적인 표현과 함께 전 세계로 보도되었다. BBC 방송과 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 국내외 유력 언론은 과장되고 편파적인 경제 상황 보도로 베네수엘라의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데 성공했다.²⁾

이러한 사회경제적 혼란 속에서 2014년 2월부터 레오폴도 로페스(Leopoldo López)를 비롯한 반정부 정치인이 주도하는 마두로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2월부터 5월 사이 시위과정에서 4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공건물 파괴와 방화 등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레오폴도 로페스를 체포하는 마두로 정부의 대처방식으로 인하여 경제위기는 정치적 위기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다음해인 2015년 총선에서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을 지지하는 좌파연합 GPP(Gran Polo Patriótico Simón Bolívar)은 반차베스주의 연합인 MUD(Mesa de la Unidad Democrática)에 패배했다. 야권 연합인 MUD는 총 167석 가운데 109석을 차지하여 의회의 절대다수당이 되었다. 이로써 볼리바르 혁명이라는 기치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국정은 마두

2) 유력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일부 수입 품목의 부족을 식료품의 절대적 양의 부족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식료품 부족이 단기적 유통 문제보다는 훨씬 심각한 경제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네수엘라 국민 전체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듯 보도하는 태도는 문제로 지적된다.



반정부지지자와 정부지지자 (출처: <http://www.yonhapnews.co.kr>)

로 대통령이 이끄는 차베스 지지(chavismo) 세력과 의회를 장악한 반차베스파 야당의 팽팽한 긴장 관계로 들어갔다.

2016년 야당은 팽팽한 줄다리기에 한 번 더 힘을 실어, 마두로 대통령 사퇴와 조기대선을 위한 국민소환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1차 청원서명을 진행했다. 2차 청원을 위해 필요한 1%의 10배에 해당하는 2백만 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여당은 서명자 가운데 사망자, 미성년자, 중범죄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정행위를 고발함으로써 국민소환투표 과정은 중지되었다. 야당은 이에 항의하며 다시 대규모 거리시위를 조직했고, 교황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올해까지 거리시위에 따른 사상사 발생과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반대로 2017년은 여당의 무모한 힘쓰기로 시작되었다. 2015년 총선에서 야당에 패한 여당 의원들의 다음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 발 빠르게 대법원 법관을 임명했다. 3월 친정부 성향의 대법원은 의회의 입법권을 사법부인 대법원이 행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가 국제적인 반대여론으로 판결을 철회했다.³⁾ 현재 마두로 대통령은 정국 수습을 위한 개헌을

3) 2015년 12월 6일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직후, 새로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2016년 1월 5일 사이에 여당 의원들은 13명의 신임 대법관을 임명했다. 그들의 임기는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반대해 4월 1일 시작된 시위는 대법관 해임, 의회 자율성, 조기 대선을 요구하며 확산되었다. 친정부시위대 및 반정부시위대, 그리고 그들을 진압하는 공권력이 뒤엉키면서 4월부터 6월 23일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7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⁴⁾

자원채취중심의 개발에 의지한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는 좌파정권의 정당성을 흔드는 정치위기로 확산되었다. 좌파정권은 그러한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21세기 사회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시위를 진압하고 삼권분립을 뒤흔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21세기 사회주의를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좌우 대립, 여야의 줄다리기를 민주주의라는 근본원리에 대한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로 파장을 일으켰다.⁵⁾ 그러나 현재 베네수엘라 좌파는 자원채취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할 가능성도, 사회주의라는 말 그대로 자본의 논리에서 온전히 벗어날 의지도,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근원적 사유를 이어갈 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위기는 ‘베네수엘라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장이다. 그리고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 현장에서 좌파의 위기를 읽을지,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읽을지, 마침내 포퓰리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읽을지에 따라 그 위기는 달리 해석된다. 그러나 위기란 반드시 몰락이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몰락과 패배를 기회로 삼은 승리가 필연적으로 잇따르지도 않는다. 라틴아메리카는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문턱을 넘어가는 중이다. 누군가의 승리와 패배를 예측하기 전에 시대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박수경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강사

12년이다.

- 4) 4월 1일부터 6월 현재까지 부상자는 1천 명을 넘어섰고 체포된 사람은 500명에 이른다.
- 5) 5월 29일 수 십 명의 라틴아메리카 좌파 지식인이 서명한 ‘베네수엘라 폭력사태를 멈추기 위한 긴급 국제 호소문. 극단화를 넘어 베네수엘라를 바라보다’가 공개되었다. 이 문서는 마두로 정부를 “점점 더 권위주의적 특징을 보이는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로 지칭하여 좌파 지식인 내부의 논쟁을 야기했다.